

9일째 화염...이스라엘, 베이루트 호텔 공습 4명 사망

이란, 걸프국 겨냥 공습 지속...사우디 외교지구·쿠웨이트 공항 피해
이란 혁명수비대 "최소 6개월 가능"...트럼프, 쿠르드족 개입에 반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9일째 접어들어 가운데 중동 일대의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불과 몇시간 만에 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도 중동 전역에 포성이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레바논 수도 중심부를 건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호텔에는 레바논 남부 등에서 온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다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이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표적으로 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군 핵심 지휘관들이 이스라엘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계획 이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원유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도 확인했다.

이란의 반격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란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 발언과는 달리 이웃한 걸프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이날 수도 리야드의 외교 지구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국 영공을 침입한 드론 15기를 격추했으며, 민간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국제공항 내 연료탱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적대적인 드론 공격에 요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으로 민간 시설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중동 내 미국의 동맹이자 미군기지가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걸프국 중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의 공습에 두바이 국제공항은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전날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 피해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부분 재개했다.



8일(현지시간) 베이루트 해안가 라우제 지역에 있는 라마다 호텔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후, 응급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AFP=연합뉴스

한 목격자는 AFP에 공항 인근에서 큰 폭발음 이 난 뒤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UAE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221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했으며 드론 공격은 1천3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바이에서는 파키스탄 국적의 한 운전자가 요격된 발사체 파편에 맞아 사망했고,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도 로켓 파편이 거리에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

중동 곳곳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교전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최소 6개월은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며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찬성(a ll for it)"한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쿠르드족의 개입이 지역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인 60%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기 어려울 것"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15년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6명꼴로 사고 원전의 201년 폐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쿄신문은 일본 여론조사사가 올해 1-3월 1천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201년 이전 사고 원전 폐기 계획에 대해 60%가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8일 전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공언한 대로 201년 전에 사고 원전이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는 7%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고 원전을 폐기하려면 약 800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반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은 본래 2030년대 초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해 일정이 2037년 이후로 미뤄졌다.

도쿄신문은 "자연이 이어지는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해설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고 원전 폐기 작업과 원전 사고에 관심이 있다는 견해는 74%에 달했지만, 전체 응답자 중 58%는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전 피해 지역 부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58%였다.

또 일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치원 원전의 운전 재개와 관련해 응답자 51%가 찬성했고 35%는 반대해 이번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쿠웨이트 석유 감산...중동 사태에 '불가항력' 선언

"무력충돌 여파로 선박 전무"

쿠웨이트가 중동 사태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현재 이라크·이란에서 원유와 석유를 운송할 선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KPC 측의 설명이다.

KPC는 이번 조치가 위기관리와 사업 지속 전략의 일부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조건이 허락하면 생산 수준을 복원할 준비는 완벽히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쿠웨이트의 핵심 정유시설인 알아마디 단지가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제품 생산량을 줄였다. 올해 1월 기준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일일 약 280만 배럴, 정유용량은 일일 80만 배럴이다.

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있는 걸프의 다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달리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쿠웨이트는 원유, 석유제품 수출은 사실상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

쿠웨이트뿐 아니라 여러 걸프 산유국에서 이란

공격에 에너지 관련 시설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 도후크주에서는 미국 HKN에너지가 운영하는 사르상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은 뒤 하루 약 3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자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세계 2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 카타르는 이란 드론 공격으로 최대 LNG 생산시설이 타격받자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공급을 중단했다. 카타르 LNG 생산 정상화에 최소 한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걸프 지역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이 걸프 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돼 산유량을 줄여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2급/누구나 가능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